

# 광주시, 절수 대책 실패하면 내년 2월부터 제한급수

### 동북댐 저수율 29.04% ... 비 소식도 없어 시민 물 절약 동참 절실 시·산하기관, 수영장·목욕탕·세차장 등 업소 대상 절수 독려 등 총력

광주시가 광주시민의 주요 상수원인 동북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일 눈물겨운 절수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시 산하 기관까지 나서 물 재사용 등 다양한 물 절약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20%대로 뚝 떨어진 동북댐의 저수율 감소를 막는데는 역부족이어서 시민의 적극적인 절수캠페인 동참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동북댐의 저수율은 29.04%를 기록 중이다. 지난 5일 30%대가 무너진 뒤 불과 3일 만에 28%대에 근접한 것이다. 이 같은 속도면 내년 2월 초까지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북댐 저수율이 7% 미만으로 떨어지면 상수도 제한급수를 시행하게 된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당분간 겨울 가뭄으로 큰 비 소식도 없는 탓에 제한급수를 막기 위해선 물 절약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대시민 물 절약 홍보전과 함께 가뭄 극복을 위한 절수 실행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일상 속 물 절약은 물론 김장철 물 사용 자제까지 호소하고 있으며, 수영장·목욕탕·세차장 등 물 소비가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절수를 독려하고 있다. 또 배수지 등 수압조절을 통한 수도

물 절감, 수도밸브 수압조절 관련 파손 복구 지원,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물 절약 홍보 방안 등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특히 절수기기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절수기기 설치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 지도점검 강화 및 지하수 개발과 이용도 권장한다.

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인 신축 건축물, 숙박업소(객실 10실 초과), 목욕장업,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업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시 산하인 광주환경공단도 이날부터 자체적으로 매월 상수사용량을 1000톤 이상 줄이기로 했다. 공단은 1·2음식물자원화시설 내 재증발 증기 회수장치설치를 통해 매월 500톤 안팎의 상수도를 절감하고, 약취 저감설비에 사용되는 세정수 중 500톤을 매월 재이용수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자체시설 및 광주전, 승천보 화장실 등 생활용수도 20% 절감을 목표로 수압 줄이기와 변기 수위 조절 등으로 물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공단 측은 매일 아침 상수도 사용량을 기록·관리하는 방식으로, 물 절감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공단은 이 밖에도 현재 3개 하수처리장(제1·2·효천 하수처리장)에서 최종방류되는 재이용수를 공업용



말라가는 동북댐 8일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동북댐 저수율이 29.04%로 뚝 떨어졌다. 당분간 큰 비 소식도 없는 탓에 물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면 내년 2월부터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살수, 조정, 세척 용수로 일일 8만 8000톤씩을 무상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재이용수 공급량을 10% 확대해 연간 320만 톤의 물자원 절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계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 시민의 절수 참여와 함께 공적

자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연재난인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 '청정전남 으뜸마을' 3000개로 확대

### 도, 2000여 마을 성과보고회...화단 조성 등 환경 개선

전남도가 '청정 전남 으뜸마을'을 3000개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전남 22개 시·군 8621개 마을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8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김영록 도지사,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시장·군수, 사회단체장, 으뜸마을 대표와 관계 공무원,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성과나눔대회를 개최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남의 청정자원을 관리·보존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 가꾸기 특화 사업으로, 인식 전환·환경 정화·경관 개선 프로그램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마을 책자 발간, 이정표나 지도 게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 신설, 해양쓰레기 청소, 정원이나

화단 조성 등이 있다.

성과나눔대회는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영상 상영, 우수 시·군 시상,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3년 전남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 으뜸마을의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자리로 치러졌다.

전남도는 올해 2000여 마을을 지원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기반으로 2023년에는 3000여 마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우수 시·군 시상에선 곡성군이 대상, 해남군과 함평군이 최우수상, 광양시, 영광군, 완도군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사업 활성화로 청정전남 실현을 위해 헌신한 28명(공무원 6명, 민간인 22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도 함께 진행했으며, 우수 으뜸마을로 선정된 50개 마을대표에게 우수 마을현판을 제공했다.

김영록 지사는 "내년에는 마을별 지원금을 늘리고 우수 으뜸마을도 대폭 추가해 선정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은 으뜸마을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 유럽연합 도시 문화·경제 협력

### 강기정 시장, 19개국 주한대사 접견...인적 교류 등 제안

광주시가 유럽연합(EU) 주요 도시들과 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8일 시청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사를 비롯한 유럽연합 19개국 주한대사를 접견하고 "의향·예향·미향의 도시로 불리는 광주와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DNA를 가진 의향으로 불린다"며 "5·18은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역사이고 광주는 민주주의의 도시로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고 광주를 소개했다.

강 시장은 특히 "그 오월의 가장 중심지였던 5·18 민주 광장(옛 전남도청)에 아시아문화전당

(ACC)이 있고, 2014년부터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지정되는 등 예술적 성취를 이룬 도시"라며 내년 개최 예정인 광주비엔날레에 대사들을 초청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광주는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역사가 가득한 데다 친환경 디지털 전환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로 인식하고 있다"며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대사들은 광주시립미술관을 방문한 뒤 광주 경제자유구역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에 있는 광주 글로벌모터스, 친환경 부품인증센터 등을 찾아 현황을 살펴봤다. /박진표 기자 lucky@

## 중단 위기 '대안 교육 기관' 지원 지속

### 광주시, 인건비·급식비 4억9300만원 지원 방침...서울시와 2곳 뿐

광주시가 교육청의 준비 미흡 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대안 교육 기관 교사 인건비·급식비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4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대안교육기관의 인건비 등을 지원했으나, 지난 1월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시교육청 소관이 됐다.

대안교육기관법에서 기관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소관으로 규정해 지원을 일원화한다는 취지였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시교육청에서 조례 제정 등 준비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임에 따라 일단 내년까지 지원을 맡기로 했다.

광주시는 내년에도 대상 기관을 공모해 올해와 같은 4억9천300만원 범위에서 교사 인건비와 급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특·광역시 가운데 인건비와 급식비를 모두 지원하는 곳은 서울시와 광주시뿐이며, 부산시와 인천시는 급식비만, 대전시는 프로그램비만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와 대구시는 아예 지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대안교육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와 지원 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